

향기가 가득한 산채마을

이 아름 주임
(본회 기획홍보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어서오세요, 우리 마을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말과 함께 방문객을 맞아해주던 산채마을이 위치한 곳이다.

산채마을은 강원도의 여느 농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넓게 펼쳐진 밭과 마을을 품고 있는 산 그리고 마을을 흐르는 물, 언제보아도 정겨운 우리네 고향 모습을 하고 있는 마을이다.

37가구, 110명이 살고 있는 산채마을은 '김학석' 이장(상단 사진)을 중심으로 하여 사무, 재무, 농업, 환경, 문화, 홍보부로 나뉘어져 '웃음이 있는 마을', '전국 제일의 부촌', '다시 돌아오는 고향', '아름답고 깨끗한 경관' 만들기를 목표로 마을을 가꿔나가고 있다. 농촌에서 드물게 이장이 월급을 받으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부서가 마을 기금을 담당하여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 또한 귀향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산채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도농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신교육(마을 이장의 표현 그대로를 차용)을 중요하게 생각, 자체적으로 사회 저명인사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주민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의식전환

교육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왔고, 산나물을 주제도 한 도농교류사업, 친환경농산물인증사업, 환경개선사업, 전통문화복원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진행해 왔으며, 산채단지 조성 및 마을 조경에도 마을 주민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이 마을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산채마을은 1999년 태기산 산채마을 조성추진단을 조성하여 산나물 씨를 뿌려 산채 단지 조성의 바탕을 마련했고, 서리가 내린 이후부터는 농한기가 되는 마을 농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산채단지 조성 및 정비작업을 서리 이후에 시



▲ 산채마을 홈페이지



▲ 녹색농촌체험마을 숙박시설(건설중)



행, 일당을 지급하여 농한기 수입을 만들어주어 마을주민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 냈다. 올해 농림부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체험장 및 숙박시설이 건축 중에 있다. 현재 산채마을에는 산채 단지가 3개가 있어 고사리를 비롯한 다양한 산채들이 계절별로 체험객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양한 산채로 만든 먹거리(곤드레밥, 산채무침, 산채 뿌페 등)와 산채마을의 캐릭터가 그려진 패키지에 담긴 살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마을은 도시에서 퇴직한 외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산채마을 가꾸기에 마을의 원주민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지인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하다.

산채마을에는 산채단지 이외에도 볼거리가 다양한데, 유럽식으로 꾸며진 슈바르츠발트 음악캠프장, 오가피 연구소인 오가명가 연구소, 삽교 안석경 선생의 묘, 매당덕 성황당 서낭제, 매당산죽 풍물놀이, 약물이 나온다는 약물단지 등이 그것이다.

산채마을에서의 체험거리는 매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산채단지를 활용한 산채관련 체험을 비롯하여 주변의 자원을 활용한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산악 달리기 대회, 요즘은 시골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소와 함께 밭갈기 등의 체험이 눈에 띈다.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하단 참조)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명칭	세부 프로그램
봄	산나물 뜯기, 떡매치기, 오가피농장, 소와 함께 밭 갈기
여름	맨손물고기잡기, 산악달리기대회, 토종벌꿀뜨기, 더덕 캐기, 감자 캐기
가을	단풍놀이, 소달구지타기, 메뚜기잡기, 도토리·밤 줍기, 산 열매따기, 산더덕 캐기
겨울	얼음썰매타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고로쇠수액채취, 전통공예체험

밖의 것이 아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고, 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산채마을의 경우에서 도농교류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도농교류의 올바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마을만의 자원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여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것, 독특한 것을 찾아내 차별화된 마을로 가꾸어야 지속적인 도농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산채마을 홈페이지 : <http://taegisan.farmmoa.com>



▲ 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꽃길



▲ 매당산죽



▲ 지난 10월 7일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중급과정' 수강생의 산채 마을 방문